



잠깐만,
새보러 갈까요?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한
한강 탐조

한강생태길잡이

신동근 정혜진

2020 활력향연 x NPO

02



한강생태길잡이

신통근

휴일이면 쌍안경을 메고 이곳저곳 다니길 좋아하며 도시 속 자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 그리고 자연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gojirim@naver.com
@magic4kiki

정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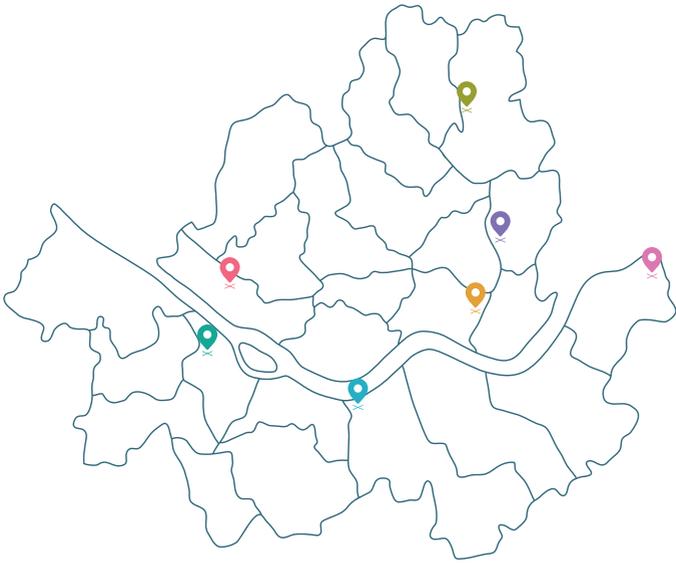
사진을 좋아하고 야생의 다양한 동식물을 즐겨 촬영합니다. 도심 속 생물 종의 다양한 생태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tyongmo@naver.com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새보러 갈까요?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한 한강 탐조)





신버더: 신동근 (ShinDK) 탐조 길잡이 (코스 설계 및 해설)

정궁금: 정혜진 (Jinny. J) 탐조 입문자 (기획 및 촬영)

목 차

07

프롤로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

23

1코스. 마포구청역-망원역 구간

하천에서 만난 쇠백로가 소개한, 한강의 친구들

33

2코스. 노원역-중계역 구간

꼭꼭 숨어라, 흰목물떼새

43

3코스. 응봉역-옥수역 구간

물새들의 향연

53

4코스. 구반포역-신반포역 구간

서래섬에 가면 물총새를 볼 수 있을까?

63

5코스. 암사역-상일동역 구간

두 바퀴로 떠나는 한강 생태 길잡이

73

6코스. 도림천역-신목동역 구간

중간중간 탐조하며 누리는 심의 시간

83

7코스. 용답역-용답역 구간

사람은 떠나고 새만 남았네

95

에필로그

도시, 한강, 새, 탐조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



새, 도시, 사람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며
Beautiful life
Beautiful bird-watching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가까운 곳을 찾아다니며
새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일 방법은 없을까?”

신버더의 이야기

2020년 봄.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시기에 1년간의 쉼의 시간이 생겼다.

어쩌면 이제는 익숙해지려고 하는 비대면의 시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시간이면 집안에 콕 박혀 은둔의 시간을 가지려면 1년이라는 세월은 감당하기에는 한편으로 너무 길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주 오래전인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을지도 모를 테지만 어느덧 삶의 때가 너무 물어버린 탓일까 아니면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이래저래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친 탓일까. 무엇인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은 특별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어쩌면 당초 6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계획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이 커다란 이유이기도 하고, 선불리 무엇인가를 했을 때 돌아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싫은 것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해 보는 것은 삶에 있어 매우 특별한 일 이었고 그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동안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나름 몇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것을 결정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오래전 일이다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활동을 처음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견학을 갈 일이 생겼다.

당시만 해도 생태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일본의 자연환경이 궁금했다. 도쿄 인근의 여러 공원을 탐방하며 그곳에서 듣고 보고 체험한

것들은 비록 며칠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하나하나 자원 활동가들이 손수 손으로 그리고 색칠해 작성한 생태 도감부터 기록장, 나무를 심더라도 오랜 모니터링을 통해 그곳의 생태에 맞는 나무를 심고 가꾼다는 이야기는 가슴에 와닿았다. 또한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 외지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신기하게 다가왔지만, 무엇보다 어느 공원에서 보았던 장면은 내가 이번 연구 활동을 하게 만든 밑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공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무척이나 커다란 호수처럼 보였던 그곳에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네다섯 정도 되어 보이는 일가족이 망원경을 통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보고 기록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겨보니 호수 위 이곳저곳 설치해 놓은 헛대 위에 까맣고 커다란 몸집을 한 가마우지들이 빼곡히 앉아 쉬고 있었다. 그 가족이 가마우지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보내는 일상의 모습이 매우 여유롭고 화목해 보였다. 그곳 안내자분에게 물어보니 일본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 자식까지 3대가 모여 근처 공원을 방문해 그곳의 새를 지속적으로 보고 기록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자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하나의 레크레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모르던 당시의 내게 신선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현장에서 생태교육을 하면서 자연을 가꾸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하고, 자연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것 아닌가 자문해왔다. 이 연구보고서가 작은 해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게 탐조할 수 있는 코스 개발”

그 시작을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도심 속 한강으로 정했다.

서울에는 한강과 그 지천들이 많다. 그곳에는 새들이 살고 있고 계절마다 철새들이 찾아온다.

지난 10여 년간 야생조류 교육을 하며 시민들이 멀리 센터까지 찾아오지 않고 사는 동네나 가까운 곳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새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일 방법은 없을지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친구 연인 혹은 혼자라도 누구나 쉽게 새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철새 및 텃새 등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찾아보면

다양한 종류의 야생 조류를 만날 수 있는 한강과 한강의 여러 지천이 많다. 이곳에서 누구나 쉽게 탐조(探鳥, 자연 상태의 새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즐기는 행위를 뜻함)할 수 있는 코스 개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탐조 다니며 동네에서 가볍게 가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탐조에 활용할 자료가 있는지 묻는 사람이 많았다. 몇몇 자료를 소개해 주었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었다. 아울러 승용차보다는 여럿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또는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탐조 코스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탐조를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코스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낼 것인가?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따릉이’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함께 한다면 어디서 만나자고 할 것인가? 또 그 구간의 어디를 봐야 초보자도 쉽게 야생조류를 찾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탐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어 보았다. 미숙한 점도 미흡한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나가기로 다짐해 본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탐조를 간다면 어디를 갈 것인가
그리고 그곳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낼 것인가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따릉이’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디서 만나자고 할 것인가, 또 그 구간의 어디를 봐야
초보자도 쉽게 야생조류를 찾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탐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어 보았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쉽고, 재미있게 실천 가능한 활동이 있을까?”

정궁금의 이야기

2020년 도시민의 삶은 예전보다 더 딱딱하다.

지난 몇 달 인류문명을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구분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고민해보았다.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생태 문명을 실천하는 생태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조금 불편해지는 것에 대한 익숙함과 실천해야 하는 행동 속에서 이 둘을 만족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았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생태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실천 가능한 활동은 없을까? 만약에 그런 활동이 있다면 누구나 실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고민에서 이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년 전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5년 차 활동을 할 때였다. NPO 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미션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 나의 개인적 가치 활동과 같은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단체가 20년이 되었고, 단체의 20년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자발적 동기로 시작된 ‘20주년 기념 행사프로젝트’는 단체의 지나온 20년 역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행사였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가치와 목적이 단체의 미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찾아보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고민은 어처구니없지만 순수했고, 당연한 결과지만 가치는 충분했다.

단체는 20년의 역사만큼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단체의 미션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고, 일꾼을 자처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 개인의 가치를 확장하여 영역을 넓힌 활동가, 자원봉사로 시작하여 환경 활동가가 되고, 지역 속으로 들어간 마을 활동가 등 오래된 날들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활동이 모여 생태환경 운동이 되고 그 운동의 결과물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생태적 가치와 신버더의 생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이 연구를 함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2020 활력향연 사업으로 시작한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한 한강 탐조 코스 개발'은 낯선 곳을 발견한 호기심 어린 초보자의 시선으로 구성해 보았다.

방문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진 한강 탐조 코스가 생태환경 운동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시작해 본다.

어느 하늘이 낮은 날에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한 한강 탐조 코스 개발”
“어린 초보자의 시선으로 구성”





알.쓸.잡.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다한 탐조 이야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탐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번 7개의 코스 안내를 맡은 신동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생태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겨울이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를 위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여 년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를 좋아해서 신버더로 불립니다. 또는 사진 촬영을 좋아해서 SNS에서는 '신디케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버더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탐조를 처음 시작하는 정혜진입니다.

야생동식물에 관심이 많아 사진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은 따로 하지 않지만, 닉네임 '지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궁금한 것을 질문을 많이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정궁금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탐조 따라가기를 하면서 여러 곳의 풍경과 새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신버더: 그럼 궁금하거나 탐조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 공유해 볼까요?

정궁금: 먼저 탐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나요?

신버더: 가능하면 탐조 경험이 풍부한 숙련자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숙련자로부터 새의 생태 등 다양한 부가설명을 들으며 탐조하면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겨울이면 한강 주변의 여러 공원에서 겨울 철새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궁금: 방송을 보면 몇 시간씩 새를 기다리며 위장 천막 속에서 기다리던데요. 이번 탐조도 그렇게 하나요?

신버더: 아뇨 이번 책 제목에도 있듯이 처음 탐조를 시작하는 초보자의 관점에서 편하게 2시간 정도 이동하며 각 코스의 새들을 관찰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경험이 많이 쌓이면 위장 천막 등을 활용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신버더: 궁금한 것은 탐조하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버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궁금: 먼저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신버더: 그렇지요.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 수 있고요.

정궁금: 하늘을 날다 보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또 땅 위의 먹이를 보아야 하니 시력이 좋을 것 같네요.

신버더: 아무래도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뼈도 가벼워야 하지 않을까요?

정궁금: 나무 위든 풀숲이든 동지를 짓고 그곳에 알을 낳아요. 알의 개수는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정궁금: 새의 체온이 사람보다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신버더: 그러네요. 요즘은 어디 가나 체온을 많이 재는데 사람이 새의 체온까지 올라가면 큰 일 나겠네요.

정궁금: 그리고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신버더: 하늘을 날기 적합한 깃털 그리고 부리와 날개는 모든 새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죠.

정궁금: 철새와 텃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버더: 겨울이나 여름 등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새를 흔히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에는 빠꾸기나 꾀꼬리 같은 여름에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하고 겨울은 다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여름 철새도 있고, 크고니나 쇠오리 같이 추운 지방에서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겨울 철새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그네새 길 잃은 새(미조 迷鳥) 등이 있어요.

반면에 텃새는 어느 지역에서 일 년 내내 살며 번식하는 새들을 말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비둘기 참새 까치 등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종류의 새들이 있겠지요.

신버더: 이번에는 탐조를 위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까요?

먼저 관찰한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작은 노트랑 필기구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는 날 짜, 시간, 장소 및 날씨 그리고 관찰된 야생조류에 대해 기록해야 하고요.

정궁금: 복장은 어떤 게 좋을까요?

신버더: 등산복 같은 걸고 움직이기 편한 복장이 좋겠죠?

맨발에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고, 걸기 편한 신발과 양말을 꼭 신기 바라며, 만약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반창고나 연고 같은 구급 약품을 챙기면 좋을 거 같아요.

정궁금: 여름철 햇빛을 막아주는 모자도 필요하겠네요.

정궁금: 쌍안경은 어떤 게 좋을까요?

신버더: 제 경험상 7배율에서 10배율 사이가 좋을 거 같아요. 배율이 너무 높아지면 손 떨림 이 심해지고 시야각이 좁아져 사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목에 걸었을 때 무겁지 않은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아 참 그리고 가방 안에는 언제나 도감 한권정도도 있어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신버더: 이번에는 야생조류 관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까요?

정궁금: 새가 놀라지 않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떠들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를 움직이게 하려고 돌을 던진다거나 우르르 새 가까이 몰려가면 안될 것 같아요.

신버더: 장소 방문 전에 그곳에 사는 새를 미리 알아보고 도감 등을 찾아서 미리 익혀 놓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물가라든지 모래톱 등 서식지의 가장자리나 새들이 쉬만한 곳을 유심히 관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쌍안경 사용법을 사전에 충분히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할 듯하네요.

정궁금: 탐조 활동하기에 적절한 시간대가 있나요?

신버더: 해뜨기 전후가 좋기는 한데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일찍 준비하고 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침에 가보길 추천합니다.

정궁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버더: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새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서 아닐까요?

정궁금: 각자 어떤 이유로 탐조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궁금: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신버더: 이 책은 총 7개의 코스로 구성되어있어 어디서든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 가능하고요, 코스별로 관찰되는 새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록장에는 코스별로 관찰할 수 있는 새들을 표시해 두었고요, 빈칸에는 새롭게 관찰되는 새들의 특징을 적어보세요.

그림판을 활용하여 그날의 특징적인 장면이나 새의 모습 등을 그려보면 그날의 탐조를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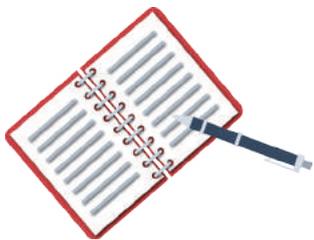
정궁금: 코스별 따라가기를 활용하면 쉽게 이용 할 수 있겠네요.

신버더: 그럼 이제 탐조를 떠나 볼까요?

정궁금: 출발~렛츠고







마포구청역 - 망원역

하천에서 만난 쇠백로가 소개한, 한강의 친구들

따라가기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홍제천

한강

마을버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따라가기



1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8번 출구



2

뒤를 돌아
홍제천 보이는 곳까지 직진



8

이동중 편의점, 놀이터 좌측으로
한강나들목 통과



7

홍제천과 합류되는
한강의 모습



9

한강나들목
통과후



10

사거리 좌측
망원유수지 방향으로 이동



3

홍제천으로 내려옴
반대편에서 탐조시작



4

홍제천의 쇠백로



6

이동 끝부분 삼거리
나오면 좌측으로



5

홍제천의 모습



11

마을버스 망원역, 홍대입구역
신촌역 이용가능



12

지하철6호선 망원역
1번 출구에서 종료

이 코스의 특징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망원역을 이용. 주변에 가을이면 역사 축제로 유명한 하늘공원과 노을 지는 모습이 장관인 노을공원, 쇼핑과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월드컵 경기장 등이 이웃하고 있다. 하천 폭이 좁고 코스가 짧아 근거리에서 야생조류 탐조가 가능하며 홍제천에서 1km 정도 지나면 한강에 도착하여 홍제천과 한강을 동시에 탐조 할 수 있다. 또한 겨울이면 아침과 오후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수백 마리의 민물가마우지를 한강에서 볼 수 있으나 홍제천과 한강 합류 지점에 자전거 이동이 특히 많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궁금: 하천에 들어서니 바로 쇠백로가 보이네요?

신버더: 쇠백로를 따라가며 탐조하다 보면 한강이 나오는데 한강에는 또 다른 새들을 볼 수 있어요.



팁!!

- 홍제천과 한강을 아울러서 탐조 가능
- 한강 합류 지점 자전거 이용객 많아 안전사고 유의
- 한강 나들목 지나 아기자기한 점포가 많음



일러스트레이션 · 이예린



쇠백로 [Little Egret]

학명: *Egretta garzetta* / 황새목 왜가리과

멸종위기등급: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출처: IUCN)

크기: 약 61cm

특징:

1. 몸의 빛깔은 흰색, 부리는 가늘고 검은색, 다리는 검은색이지만 발은 노란색으로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여름깃은 머리에 두 가닥의 긴 땃깃이 있으며, 목과 등에는 장식깃이 발달한다. 눈 앞부분은 노란색이나 연두색이지만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3. 겨울깃은 장식깃이 없으며 부리 기부가 흐린 분홍색을 띤다.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70p]



논병아리 [Little Grebe]

학명: Tachybaptus ruficollis / 논병아리목 논병아리과

멸종위기등급: 미평가 (NE: Not Evaluated, 출처: IUCN)

크기: 약 26cm

특징:

1. 논병아리류 중 가장 작은 종, **눈은 노란색**이며, 다른 논병아리류와 달리 **날개 윗면에 흰색 부분이 없다.**
2. 여름깃은 **뺨과 목 앞부분과 옆이 적갈색**이며, 부리 기부에 노란색 부분이 있다.
3. 겨울깃은 몸 아랫면은 흐린 갈색이고, 머리꼭대기와 등은 어두운 갈색이다.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52p]

기록장 (아래 새들을 찾아보고 특징을 적어보세요)

쇠백로-

중대백로-

직박구리-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논병아리-

물닭-

백할미새-

검은등할미새-

민물가마우지-

참새-

까치-

그림판





2

노원역 - 중계역

꼭꼭 숨어라, 흰목물떼새

따라가기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상계고등학교
중랑천
당현천
지하철 7호선 중계역



📍 따라가기



1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6번 출구



2

뒤를 돌아 사거리에서 직진



8

3거리 나오면 좌측으로



7

중간중간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음



9

길 따라 직진
이곳이 당현천



10

지하철 7호선 증계역
6번 출구 까지 직진



3

주공3단지 지나면 상계고등학교



4

사거리 횡단보도 건널



6

중랑천이 보이는 곳부터 시작



5

아래로 향하는
계단 내려옴



11

현재는 계단으로 되어있으나



12

에스컬레이터 공사예정

이 코스의 특징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과 7호선 중계역 구간이다. 노원역의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6번 출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지하철역에서 중랑천까지 약 500m 거리로 중간에 횡단보도 2곳을 건너야 한다. 코스 중간중간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어 그곳에 원앙을 비롯하여 꼬마물떼새 최근에는 흰목물떼새도 관찰된다. 창동고 밑으로 물살이 세고 이곳에 먹이 사냥을 하는 왜가리 민물가마우지를 자주 볼 수 있으며, 당현천의 경우 하천 폭이 매우 좁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청둥오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봄이면 녹천교 주변으로 104마을에서 날아온 제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곳 탐조 후 멀지 않은 104마을 가보는 것도 추천한다. 중계역의 경우 현재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나 추후 공사 예정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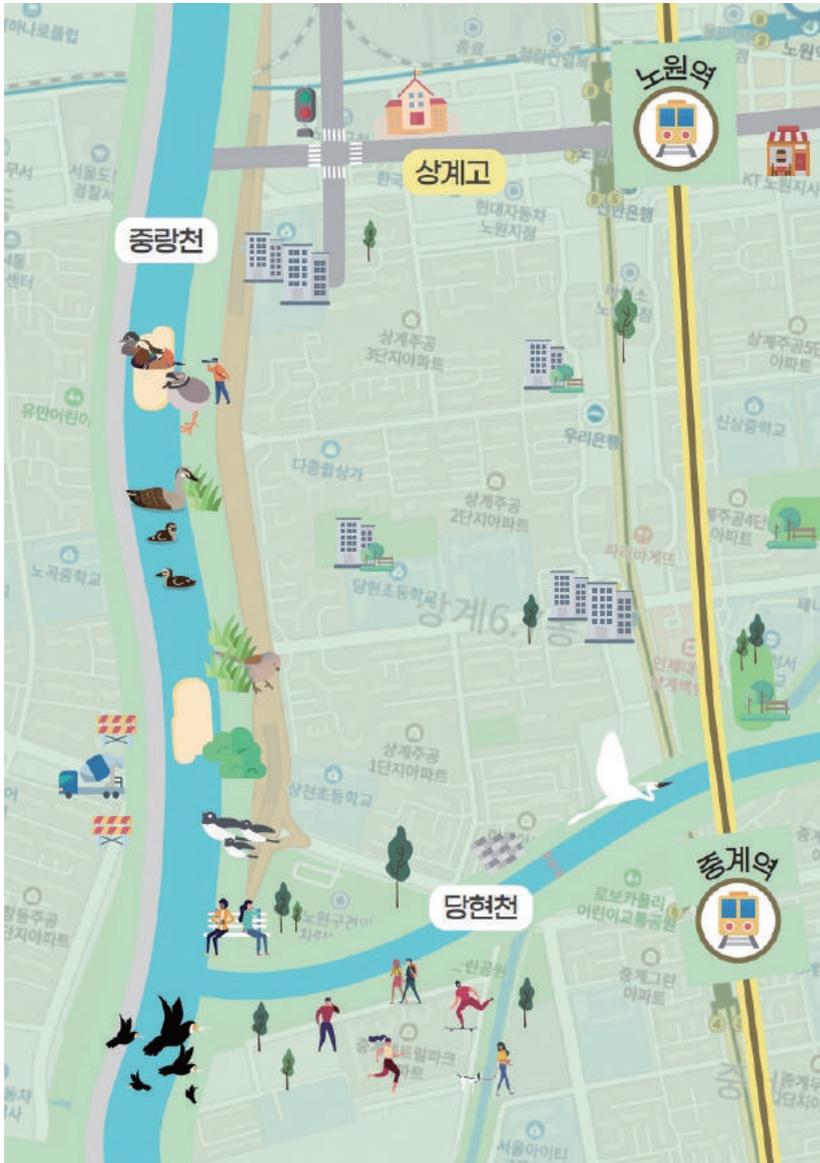
정궁금: 이곳에서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새가 있다고 하던데요?

신버더: 네. 꼬마물떼새와 비슷한 흰목물떼새를 찾으러 가볼까요?



팁!!

- 중랑천에 모래톱이 중간중간 형성되어 있어 그곳에 다양한 야생조류 탐조 가능
- 최근 흰목물떼새 서식 확인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다리 밑 비둘기 배설물 조심



일러스트레이션 · 이예린



원앙 [Mandarin Duck]

학명: *Aix galericulata* / 기러기목 오리과

멸종위기등급: 천연기념물 제327호 (1982년 11월 04일)

크기: 약 45cm

특징:

1. 활엽수림이 발달한 산간 계곡의 나무 구멍에 둥지를 트는 **화려한 오리**, 인공 새집에서 번식하기도 하며 나무에도 잘 앉는다. 겨울에는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2. 수컷은 흰 눈썹선과 부채형의 큰 **셋째날개깃**이 뚜렷하며 부리는 **붉은색**이며, 번식기 이후 변화짓은 암컷과 부리색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3. 암컷의 가는 **눈선은 흰색**이며 부리는 **검은색**이다.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84p]



꼬마물떼새 [Little Ringed Plover]

학명: Charadrius dubius / 도요목 물떼새과

멸종위기등급: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출처: IUCN)

크기: 약 16cm

특징:

1. 날 때 날개에 흰 띠가 없다.
2. 여름깃은 선명한 **노란색의 눈테**가 특징이다. 머리꼭대기에 검은색과 흰색의 줄이 있다.
가슴에는 검은색 굵은 띠가 있다.
3. 겨울깃은 머리와 가슴의 검은색 부분은 갈색으로 바뀐다.
4. 어린새는 머리와 가슴에 검은색 띠가 없으며, 어깨깃과 날개덮깃의 깃가장자리는 황갈색이다.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140p]

기록장 (아래 새들을 찾아보고 특징을 적어보세요)

쇠백로-

중대백로-

직박구리-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원앙-

백할미새-

붉은머리오목눈이-

꼬마물떼새-

민물가마우지-

흰목물떼새-

제비-

그림판





3

응봉역 - 옥수역

물새들의 향연

따라가기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
철새보호구역
중랑천하류
한강
지하철 6, 경의중앙선 옥수역



📍 따라가기



1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 1번 출구



2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8

길 따라 한강 쪽으로 이동



7

전경



9

이동하며 중랑천과 한강탐조



10

옥수역 이정표 따라 이동



3

왜가리



4

중대백로



6

민물가마우지



5

휴식 중인 민물가마우지



11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이용



12

지하철 3호선 옥수역
4번 출구 모습

이 코스의 특징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과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옥수역 구간이다. 응봉역과 옥수역 어느 곳에서 출발해도 무관하지만 끝나고 귀가가 편리한 옥수역을 끝지점으로 하는 편이 좀 더 나을 듯하다. 특히 옥수역의 경우 서울 어디서 접근해도 크게 멀지 않을 정도로 위치가 좋으며 응봉고 밑으로 물살이 얇아 커다란 물고기를 사냥하는 왜가리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중랑천 하구 철새보호구역이며 코스 주변으로 다양한 꽃들을 심고 가꾸어 코스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특히 저녁 한강의 노을 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옥수역 4번 출구 추천한다.

정궁금: 해지는 오후에 오니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이채롭네요.

신버더: 많은 민물가마우지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탐조 입문자들은 꼭 한번 와보길 추천합니다.

팁!!

- 서울 어디서든 접근성 용이
- 근거리에서 탐조 가능
- 노을 지는 한강의 모습이 아름다움



일러스트레이션 · 이예린



왜가리 [Grey Heron]

학명: Ardea cinerea / 황새목 왜가리과

멸종위기등급: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출처: IUCN)

크기: 약 93cm

특징:

1. 머리꼭대기는 흰색, 눈 위에서 뒷머리까지 검은색이며 2~3개의 댕기깃이 있다. 앞목의 중앙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으며 어깨깃도 검은색이다, 날 때는 검은색 날개깃이 회색의 등, 날개덮깃과 대조를 이룬다.
2. 여름깃의 부리는 주황색을 띠며, 다리는 붉은색 또는 붉은색을 띤 갈색이다.
3. 겨울깃은 부리와 다리의 붉은색이 없어진다.
4. 어린새는 머리에 댕기깃이 없으며 몸 윗면의 회색이 흐리고 갈색을 띤다. 어깨깃의 검은 색이 없다.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72p]



민물가마우지 [Great Cormorant]

학명: Phalacrocorax carbo / 사다새목 가마우지과

멸종위기등급: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출처: IUCN)

크기: 약 82cm

특징:

1. 몸 윗면은 **푸른색 광택을 띤 갈색**, 부리의 기부는 **노란색**, 바깥쪽의 나출부는 흰색이며 그 경계는 **둥글다**. 가마우지보다 꼬리가 길어서 날 때 다리 뒤로 꼬리가 길게 나오며 날개가 몸 중앙에 위치한다.
2. 여름깃은 다리 위쪽에 흰색 반점이 있으며, 뒷머리와 뒷목에 털 모양의 흰색 깃털이 있다.
3. 겨울깃은 뒷머리와 목, 옆구리에 흰색 반점이 없다.
4. 어린새는 검은색을 띤 갈색, 몸 아랫면은 흐린색이다.
5. 유사종으로 가마우지는 몸 윗면이 녹색이며, 부리 기부와 나출부의 경계가 각이 진 것으로 구별된다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62p]

그림판





4

구반포역 - 신반포역

서래섬에 가면 물총새를 볼 수 있을까?

따라가기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서래섬 나들목
서래섬
반포안내센터 나들목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따라가기



1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2번 출구



2

출구에서 나와서 직진



8

서래섬 전경



7

나들목 통과 후
황단보도 건너 탐조시작



9

반포안내센터 나들목 통과



10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 통과



3

반포한강공원
이정표 따라 이동



4

바닥에 친절하게 안내



6

서래섬 나들목 통과



5

아래로 향하는
계단 내려움



11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직진



12

지하철9호선 신반포역
1번 출구

이 코스의 특징은?

구반포역에서 신반포역까지 9호선으로 접근 가능한 이 코스는 구반포역에서 코스 시작점까지 약 1km 정도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중간중간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 찾아가기 쉬우며 9호선 3호선 그리고 7호선 3개 노선이 겹치는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3호선과 7호선 이용하는 경우는 조금 더 걸기는 하지만 위 역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코스는 한강 그리고 서래섬과 그 주변의 탐조가 가능하며 서래섬 안쪽과 바깥쪽을 탐조하는 재미가 있다. 또한 섬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특히 탐조와 별개로 야경의 모습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사진 촬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와보길 바라는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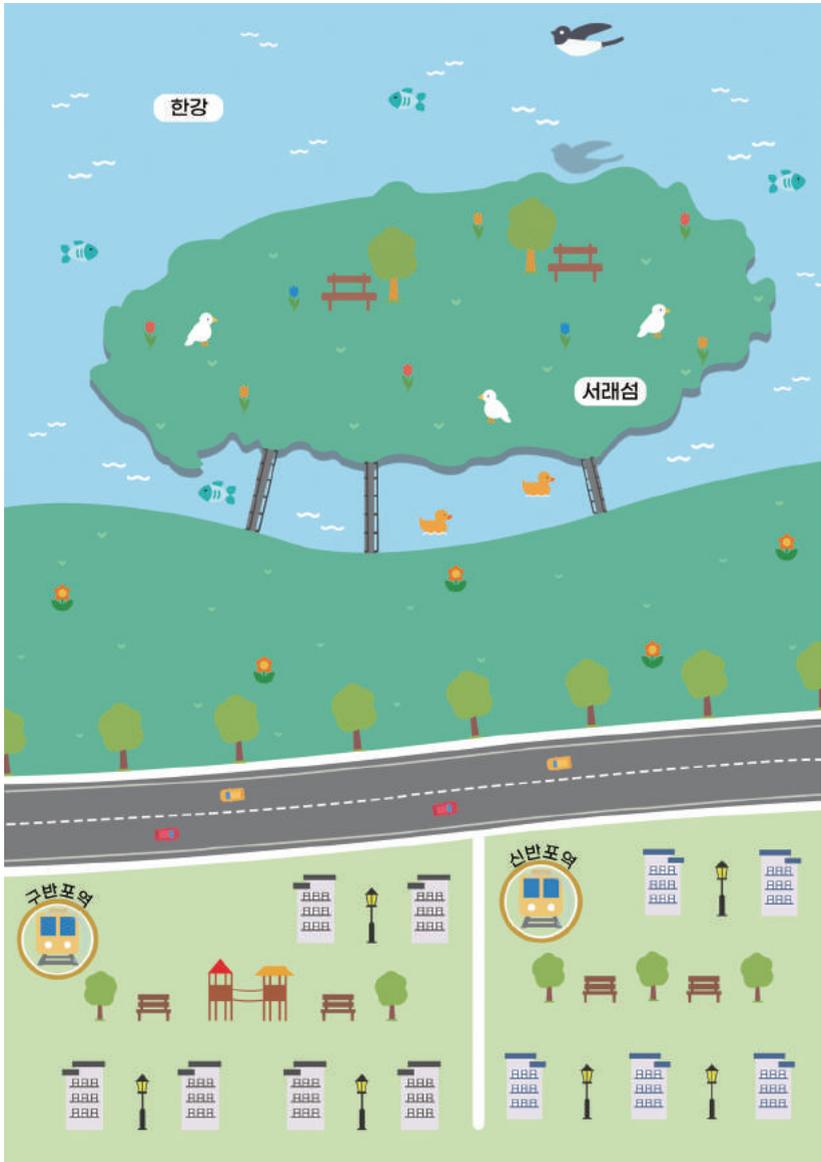
정궁금: 한강을 가까이서 보니 정말 좋네요.

신버더: 우리가 갔던 하천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곳에서 물총새를 만나면 더욱더 좋겠네요.



팁!!

- 전철역에서 탐조코스까지 친절함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
- 한강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탐조 할 수 있음
- 야경이 아름다운 곳



일러스트레이션 · 이예린



물총새 [Common Kingfisher]

학명: *Alcedo atthis bengalensis* / 파랑새목 물총새과

크기: 약 17cm

특징:

1. 몸 윗면은 전반적으로 **녹색을 띤 푸른색**에나 등은 선명한 파란색이다. 몸 아랫면은 선명한 주황색이다, 검은색 눈의 앞과 뒷부분에는 주황색의 반점이 있다, 목 옆과 멍은 흰색, **검은색의 부리는 길고 곧으며, 암컷의 아래 부리는 붉다.**
2. 어린새는 몸 색깔이 탁하다.
3. 물 속으로 다이빙하여 부리로 물고기를 잡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찌앗'하고 날카롭게 운다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한국의 새(아외원색도감)>(2014), 216p]



붉은머리오목눈이 [Vinous-throated Parrotbill]

학명: *Paradoxornis webbianus* / 참새목 붉은머리오목눈이과

멸종위기등급: 미평가 (NE: Not Evaluated, 출처: IUCN)

크기: 약 13cm

특징:

1. 몸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이며, 날개는 접고 있을 때 적갈색으로 보인다. 배는 황갈색, 부리는 짧고 굵으며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나 부리 끝은 밝게 보인다. 꼬리는 길다.
2. 둥지는 농가의 나무울타리, 관목림 속 등에 만든다.
3. '개개개갯, 피유-, 피유-, 피유-'하고 운다.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284p]

기록장 (아래 새들을 찾아보고 특징을 적어보세요)

흰죽지-

괭이갈매기-

물닭-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논병아리-

개개비-

백할미새-

뿔논병아리-

쇠백로-

붉은머리오목눈이-

물총새-

그림판





5

암사역 - 상일동역

두 바퀴로 떠나는 한강생태 길잡이
(자전거 이용)

따라가기

지하철 8호선 암사역
한강길
고덕수변생태공원
고덕천
지하철 8호선 상일동역





따라가기



1

지하철 8호선
안산역 4번 출구



2

직진



8

한강전경



7

큰고니 비오리 등
다양한 야생조류



9

고덕수변생태공원



10

고덕천 한강합류지점



3

올림픽대로 방면
좌측으로



4

이정표 지나 계속 직진후
횡단보도 건널



6

토끼굴 통과 후
우측 한강길로 합류



5

다시 횡단보도 건너
토끼굴 통과



11

고덕천 지나
상일동역 방향으로



12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4번 출구에서 종료

이 코스의 특징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5호선 상일동역 구간인 코스이다. 자전거를 이용한 코스다 보니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따릉이 대여 시 다른 곳에 비해 항상 따릉이가 많이 비치된 8호선 천호역 4번 출구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나 한강까지 접근이 많이 복잡해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한강길 따라 이동하는 코스는 대체로 평탄하나 구암정 주변으로 오르막이 쉽지 않고 반대로 내리막에서는 속도 제어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큰고니 등 겨울 철새를 관찰하기 용이하며 한강과 연결되는 고덕천 구간은 장마철과 태풍이 불어올 때는 통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가급적 피해야 하며 한강 변 고덕 수변 생태공원에 둘러 보길 추천한다.

신버더: 이 코스는 구간이 너무 길어 자전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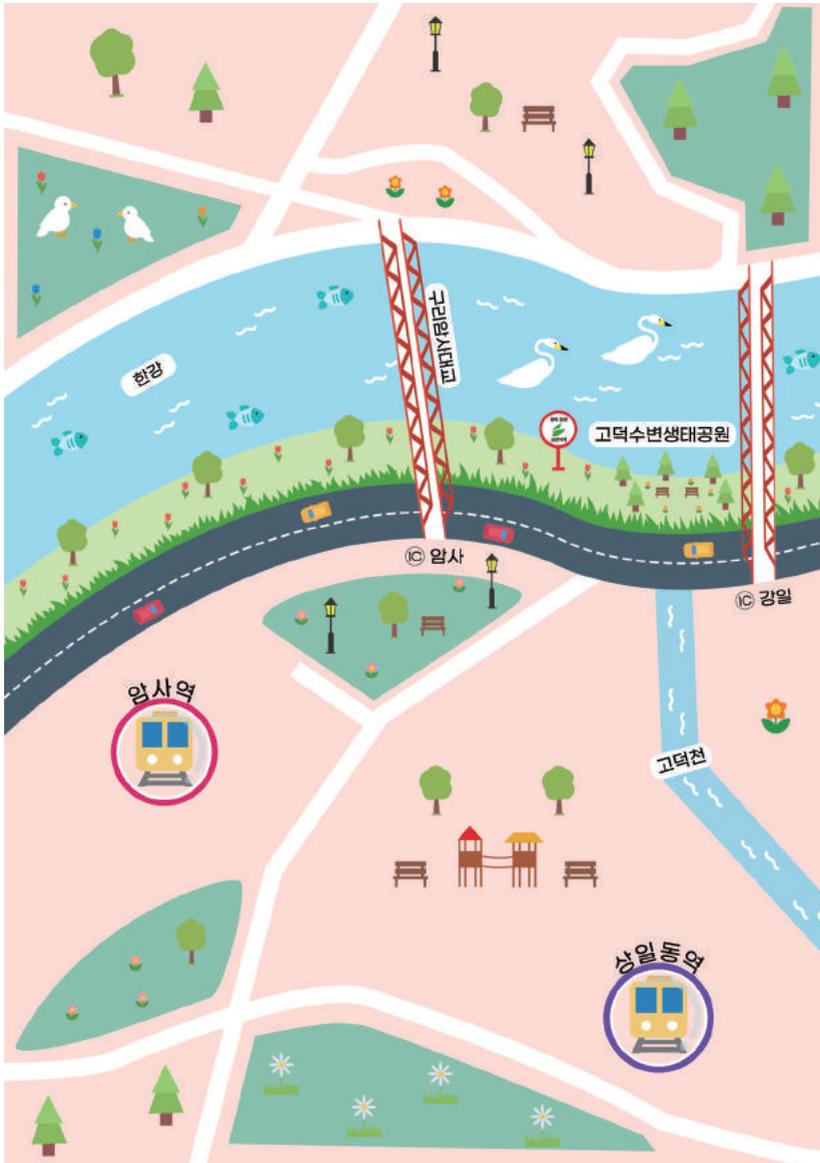
정궁금: 여름철엔 무더위를, 겨울철엔 빙판길을 조심해야겠네요.

신버더: 안전사고 특히 주의하세요.



팁!!

- 자전거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코스
- 오르막은 많이 힘들며 내리막 구간에서 안전사고 유의
- 고덕 수변 생태공원 탐방 시 자전거는 따로 보관하고 들어갈 것
- 장마철과 태풍이 불어올 때는 피할 것



일러스트레이션 · 이에린



큰고니 [Whooper Swan]

학명: Cygnus cygnus / 기러기목 오리과

지정종목: 천연기념물 제201-2호 (1968년 05월 31일)

크기: 약 140cm

특징:

1. 몸 전체가 흰색이며, 부리 끝과 다리는 검은색이다. 부리 기부(기부)의 노란색 부분이 앞으로 뽀족하게 나와 있다. 목을 곧게 세우고 부리를 수면과 평행하게 하여 헤엄친다.
2. 미성숙새는 몸이 회갈색이다.
3. 높은 소리로 '호, 호' 또는 '훗호 훗호 훗호'하고 날카롭게 운다.
4. 유사종 고니는 부리 기부(기부)의 노란색 부분이 좁은편이며 부리 기부는 연한 분홍색이다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82p]



물닭 [Common(Eurasian) Coot]

학명: Fulica atra / 두루미목 뚝부기과

멸종위기등급: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출처: IUCN)

크기: 약 40cm

특징:

1. 몸 전체가 검고 통통한 습지 조류이다. **흰색의 부리**와 이마판이 뚜렷하며, 날 때는 둘째날개깃의 흰색 끝부분이 보인다. 다리는 검은색이며 판족을 가지고 있어 수면을 헤엄치는데 적합하며 잠수에도 능하다. 위험할 때는 잠수를 하거나 수면을 박차고 뛰어서 도망간다.
2. 어린새는 턱과 뺨, 가슴은 흰색이며 몸 전체는 회갈색이다. 수면에 앉아 있을 때 꼬리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3. 유사종 쇠물닭의 어린새는 수면에 앉아 있을 때 꼬리 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난다.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134p]

기록장 (아래 새들을 찾아보고 특징을 적어보세요)

흰죽지-

비오리-

물닭-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논병아리-

검은등할미새-

백할미새-

뿔논병아리-

쇠백로-

꼬마물떼새-

물총새-

말뚝가리-

그림판





6

도림천역 - 신목동역

중간중간 탐조하며 누리는 심의 시간

따라가기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

도림천

도림천 안양천 합류지점

안양천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 따라가기



1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 2번 출구



2

정면에 보이는
도림천에서 좌측이동



8

안양천 전경



7

왜가리 등 야생조류



9

안양천 야생조류 안내판



10

신목동역 방향으로
계속 이동



3

안양천 합류지점까지
이동 후 탐조시작



4

도림천 고가차도 아래중간



6

중간 벤치에 앉아 휴식



5

안양천 따라 이동



11

양천 바이클라우드
코로나로 현재 휴관 중



12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3번 출구

이 코스의 특징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에서 9호선 신목동역까지 대략 4km 정도의 구간이다. 코스가 평이하고 걸기에 좋으나 구간이 비교적 긴 편이고 그늘이 거의 없어 여름철에는 신청교나 오목교 등 다리 밑 그늘에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인도에서 하천까지 거리가 멀어 쌍안경은 필수이다. 이 코스는 자전거를 타고 신목동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강 그리고 선유도 공원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으며 2호선 타고 가다 신도림역에서 환승하여야 해서 지하철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

정궁금: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코스가 좀 긴 편이지만 중간중간 쉴 곳이 많아 탐조하기 좋네요.

신버더: 탐조는 기다림의 미학 아닐까요?

정궁금: 새를 기다리며 잠시 쉬는 시간처럼 인생에도 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팁!!

- 안양천 구간은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임
- 여름철에는 그늘진 곳에서 탐조
- 구간이 다소 길어 여름에는 비추천
- 2호선 환승 시 유의할 것



일러스트레이션 · 이예린



청둥오리 [Mallard]

학명: *Anas platyrhynchos* / 기러기목 오리과

지정종목: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출처: IUCN)

크기: 약 59cm

특징:

1. 한국에 도래하는 오리류 중 가장 흔한 **대표적인 겨울 철새**이며 일부는 번식도 한다.
2. 수컷은 부리가 뚜렷한 노란색이며 머리는 금속광택의 녹색에 흰색의 가는 목테가 있다. 가슴은 짙은 갈색이며 윗꼬리덮깃의 검은색 깃은 위로 알려 있다. 변환깃일 때도 부리는 노란색으로 암컷과 구별된다.
3. 암컷은 몸은 황갈색이며 주황색 부리에는 검은색 반점이 있다.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86p]



중대백로 [Great Egret]

학명: *Ardea alba* (*Egretta alba modesta*) / 황새목 백로과

멸종위기등급: 미평가 (NE: Not Evaluated, 출처: IUCN)

크기: 약 90cm

특징:

1. 여름깃 부리는 검은색이며, 눈 앞부분은 녹색이다. 등에 장식깃이 발달한다.
2. 겨울깃 부리와 눈 앞부분은 노란색이다.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70p]

기록장 (아래 새들을 찾아보고 특징을 적어보세요)

개개비-

해오라기-

노랑할미새-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쇠백로-

중대백로-

논병아리-

곤줄박이-

박새-

딱새-

그림판





용답역 - 용답역

사람은 떠나고 새만 남았네

따라가기

지하철 2호선 용답역
 청계천 용답나들목
 용답나들목 반대편
 재개발 예정지역
 지하철 2호선 용답역





따라가기



1

지하철 2호선
용답역 2번 출구



2

청계천 용답 나들목
나옴



8

제비둥지



7

빈집들



9

제비



10

제비둥지와 제비 배설물 받침대



3

탐조 시작



4

탐조후 용담 나들목
반대편으로 나옴



6

재개발 예정구역
일대



5

출구 나와서
좌측으로 이동



11

한바퀴 돌아
다시 용담역 방향으로



12

지하철 2호선
용담역 2번 출구

이 코스의 특징은?

지하철 2호선 용답역에서 출발하여 용답역에서 끝나는 코스이며 답십리역에서 끝내도 좋다. 이 코스는 다른 곳과 달리 5월에서 6월 정도에 가볼 것을 추천하며 지하철 이용 시 환승에 유의하여야 한다. 출구가 2개밖에 없어 약속 장소로 매우 편리하고 용답 나들목으로 나와서 청계천 탐조 후 다시 반대편 용답 나들목으로 나와 주변 주택가와 재개발 예정지의 제비와 제비 동지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제비 동지가 있는 곳들 대부분이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수년 후에는 모두 철거되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재개발 전 제비가 찾아오는 5월과 6월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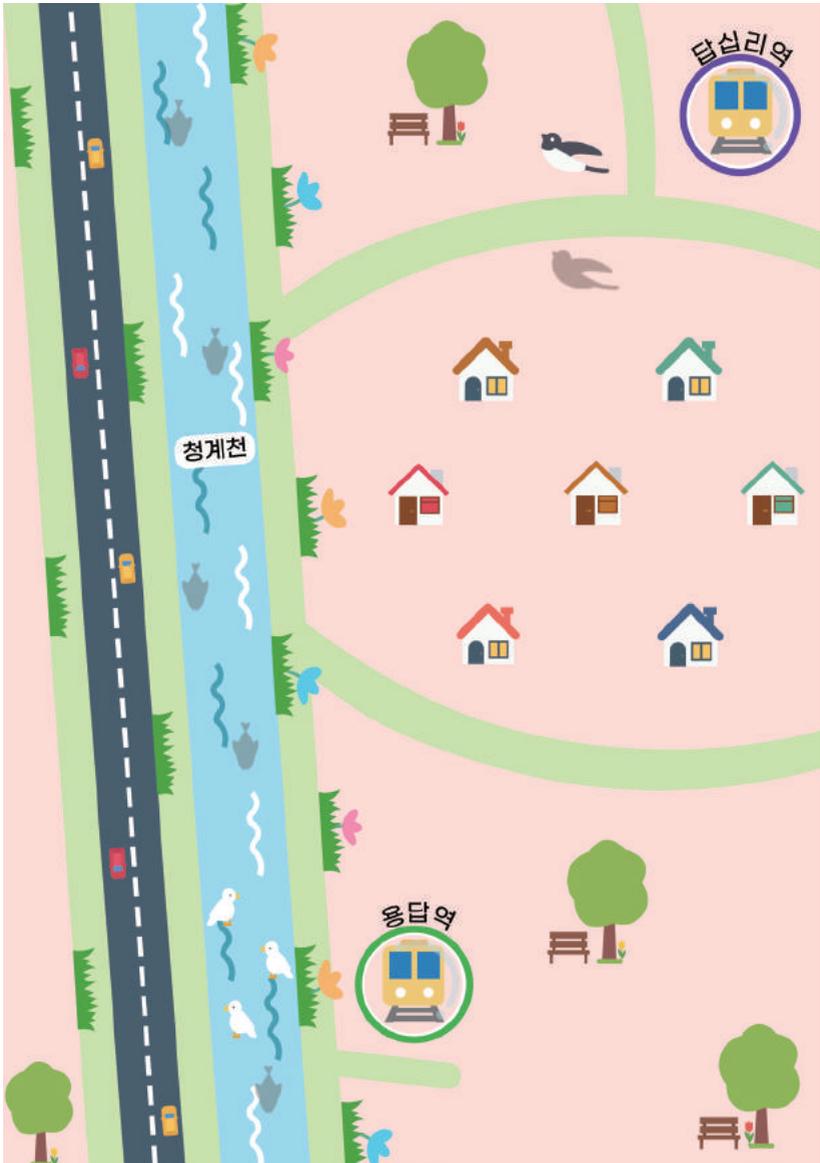
정궁금: 재개발을 앞두고 떠난 빈집에 제비들만 남았네요. 제비들도 이곳을 떠나겠지요

신버더: 훗날 제비가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제비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팁!!

- 물새와 제비를 함께 볼 수 있는 곳
- 몇 년 뒤에는 재개발로 인하여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음
- 2호선 환승 시 유의할 것



일러스트레이션 · 이예린



제비 [Barn Swallow]

학명: *Hirundo rustica* / 참새목 제비과

지정종목: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출처: IUCN)

크기: 약 18cm

특징:

1. 인가에 접시형의 동지를 만들어서 흔히 번식한다. 몸 윗면은 광택이 있는 **어두운 청색**이며, 이마와 멧은 적갈색이다. 멧아래에는 검은색 띠가 있다. **배**는 얇은 주황색을 띤 희색 또는 **흰색**이다.
2. 수컷은 암컷보다 바깥꼬리깃이 더 길다.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228p]



흰뺨검둥오리 [Spot-billed Duck]

학명: *Anas poecilorhyncha* / 기러기목 오리과

멸종위기등급: 미평가 (NE: Not Evaluated, 출처: IUCN)

크기: 약 61cm

특징:

1. 전국의 물가 근처에서 흔히 번식하며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하한 무리가 집단으로 월동한다.
2. 암수가 비슷하나 수컷의 윗꼬리덮깃과 아래꼬리덮깃이 암컷보다 어두운 흑갈색이며, 수컷의 뺨은 암컷보다 더 밝게 보인다. 황갈색 뺨을 제외한 몸 전체가 균일한 어두운 갈색이다. 뚜렷한 흰색의 셋째날개깃은 먼 거리에서도 잘보인다. 검은색 부리 끝은 노란색이며, 다리는 주황색이다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2014), 86p]

기록장 (아래 새들을 찾아보고 특징을 적어보세요)

제비-

해오라기-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붉은머리오목눈이-

쇠백로-

중대백로-

직박구리-

그림판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니까.”

신버더의 이야기

수개월간 진행되었던 활력향연 사업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지난 6개월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과 그 지천들을 수없이 오가며 그곳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 그리고 경험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듯 하다.

따뜻한 봄날

처음 시작할 때 넘쳤던 열정은 코로나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과 때 이른 무더위, 장마 거기에 쉼 없이 이어진 태풍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야 했던 지난 몇 달을 통해 마스크에 밴 땀만큼이나 많은 기억으로 남는다.

강물에 비친 풍경이 아름다워 오래도록 걸었고, 노을 지는 강을 자전거로 달리며 영화 속 한 장면을 상상하고, 흰목물떼새 꾀꼬리 개개비 등 답사 과정이 외롭지 않게 여러 새를 만날 수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

이른 아침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갔건만 공원 통제로 인하여 접근 자체가 안된 곳도, 물총새가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갔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괜한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탔했던 일도, 자전거 코스 개발을 위해 종일 다니다 자전거에 부착했던 라이트를 잃어버린 경험도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랜 시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일들은 이른 더위에 결코 쉽지 않았다.

또한 자료 정리하며 다시 찾은 장소는 몇 달 사이에 새롭게 공사 중이어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곳도 있었고 태풍이 불어오는 날 날아오는 나뭇가지를 피해가며 재답사를 한 곳도, 우리가 선정해서 작업하는 장소들이 과연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1년간의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각 코스의 다양한 야생조류에 대한 자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정밀한 자료가 되었을 텐데 짧은 연구 기간이 못내 아쉽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 알고 있는 곳 함께 하고 싶은 곳 그리고 그곳을 연계한 코스를 만들어 본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고 이 자료가 어쨌면 누군가에게는 야생조류 탐

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연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자연을 이해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될 거라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니까.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공존’이라는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그만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궁금의 이야기

지난 몇 개월간 한강과 한강 지천의 여러 곳의 답사를 다녔다.

처음 탐조 활동의 시작은 기버(Giver)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많이 지쳐 있을지 모를 활동가에게 조금은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일과 답사를 병행하는 것은 일정 조정부터가 용이하지 않았다.

가정이 있는 주부의 특성상 일 그리고 가사에 덧붙여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간을 내서 한 가지를 더한다는 것은 묶여 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때론 어려운 일이었다.

종량천, 흥제천, 안양천 등 서울의 여러 하천을 다니며 그곳을 알아가고 그곳에 사는 새들을 보고 기록하고 그곳의 코스를 만들어 가는 활동은 종일 걸어 아픈 발바닥만큼이나 인생에 있어 어쩌면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집 근처에 있는 하천에도 가보지 않던 내가 수십 곳의 하천을 다니다 보니 그곳의 작은 풀 하나, 멀리서 들려오는 저마다의 새 울음소리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천의 새를 직접 보고 도감을 펼쳐 일일이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름을 알고, 습성을 알고, 구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다 함께 들리던 새소리도 자꾸 듣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법 소리만으로 어느새 소리인지, 무슨 새가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도 항상 볼 수 있는 종류의 새가 있지만, 처음 만나는 새로운 새도 있었고, 안내판에는 있으나 찾을 수 없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지는 새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이 그동안의 작은 변화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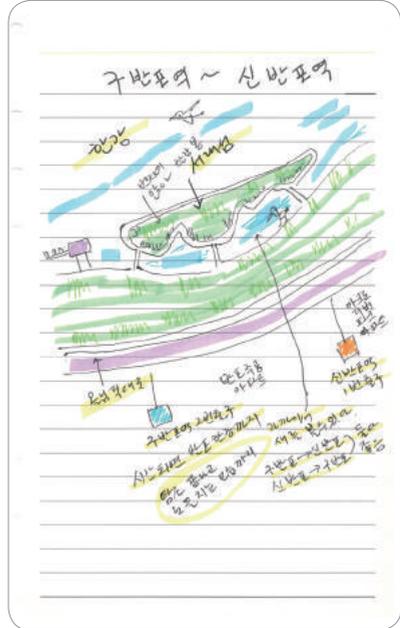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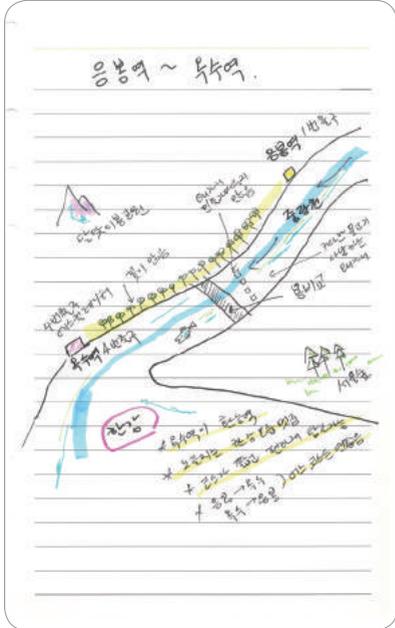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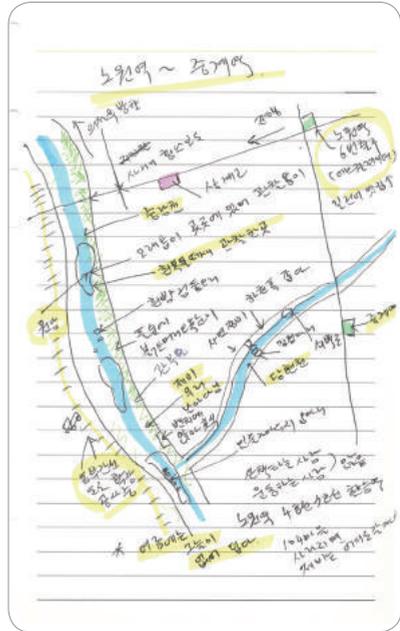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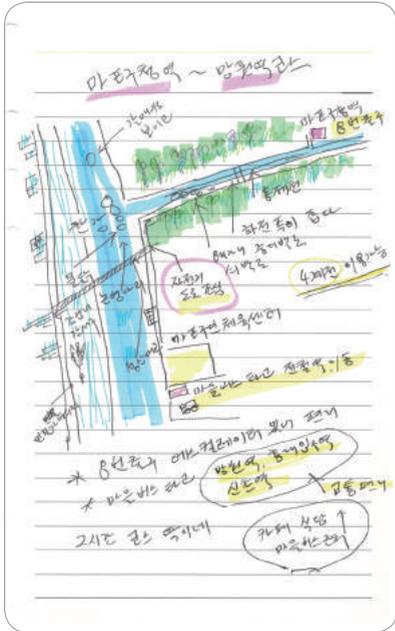
탐조 활동을 하면서 이곳저곳 새가 있는 곳을 찾아 느리게 걸으며, 쌍안경을 통해 물 위의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또 어느 때는 언제 저 멀리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새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연과 접하며 자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 생태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느리지만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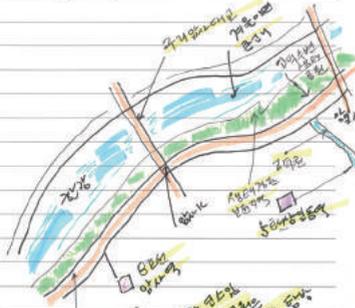
입문자의 입장에서 혹은 혼자여도 좋고 함께하면 더욱 좋을 탐조 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공존'이라는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그만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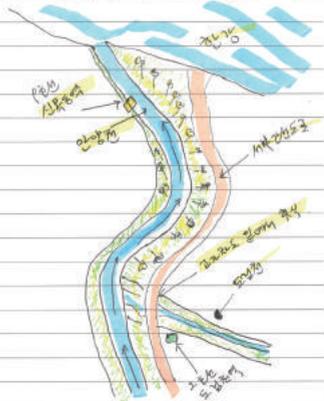


양사역 ~ 상인동역



- * 상인의 이용 공간
- * 도로변에 설치된 건물
- * 인구가 적은 지역
- * 자연의 아름다움

도림천역 ~ 신목동역



- * 도림천은 방문 공간
- * 신목동역은 마을 중심에 있음
- * 한양도교와 연결된 도로

용담역 ~ 용담역



- * 2차 출근 후의 자연 휴식 공간
- * 1차 출근 후의 자연 휴식 공간
- * 인근을 알려주는 길
- * 500m - 600m 구간

한국생태경관학회 / 신진, 제비
"대중교통은 생활하는 한 사람 간의 거리를"

함께 (시)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며 (시) (시)

"고급이라는 단어를 자연대에 반하는 것은"

지역에 잘 어울리지 (당연하게) 작성된 지시 ---

각종이론에 따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영역에서
비하는 불행이 아니므로 불행은 아니다.

"같이 공간이란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은
같이 공간이란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은
같이 공간이란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자연의 제비

참조

-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 글꼴이 사용되었습니다.
- 새 정보는 <한국의 새(야외원색도감)>(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지음, 타니구치 타카시 그림, LG상록재단 펴냄, 2014)의 내용의 일부가 사용되었습니다.
- 사진 및 일러스트 그림지도에 대한 저작권은 신동근, 정혜진에게 있습니다. (CC BY-NC-ND)

2020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0년 11월 27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